

정의와 윤리

2022.11.1

기윤실. 그리스도인의 삶과 길
손봉호

사람과 사회가 고통을 가한다.

- Daniel Bell, 사람들은 점점 더 자연 바깥에서 살고 있다.
...인류역사의 대부분에서 현실은 자연이었다. ...지금은 오직 사회적 세계만이 유일한 현실이 되고 있다.”
- George Mead: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가진 견해를 통해 형성된다.” (I am who I am through the view of my self which is furnished by others.)
- Karl Marx: “인간은 혼자 있어도 사회적이다.”

- 한국인을 한국인으로 만드는 것은 한국 사회. 언어, 가치관, 행동방식, 사고방식 등이 한국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인이 됨.
- 따라서 한국인의 행복과 불행도 대부분 한국 사회와 다른 한국인에 의하여 결정됨.

-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 불행을 기피한다.
- B. Pascal, “사람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것은 증명이 필요 없다. 우리가 바로 느낀다.”
- J. Bentham, “자연인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란 두 주권자 밑에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그들만이 지적하고 결정하도록 한다.그 둘은 우리가 행하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지배한다.”

그 둘 가운데 고통이 더 중요하다. 쾌락은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고통은 심각한 온갖 문제를 야기한다.

Karl Popper: 고통과 쾌락은 symmetric 하지 않다. 행복하기 이전에 우선 고통을 피하려 한다. (Negative Utilitarianism).

A. Schweitzer, “고통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인류의 적이다.” (안락사, 자살 현상)

-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4/5는 다른 사람이 가한다 (c. S. Lewis).
- 장애인의 93%는 후천적인 원인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불가항력의 자연이 아니라 사람의 잘못 때문이므로 그들의 불행에 대해서는 사람이 책임져야.
- Thomas Hobbes: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homo homini lupus.) (Livingstone 자연박물관) “The most dangerous animal).

- Reinhold Niebuhr,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개인은 양심, 합리성, 체면, 자존심, 위선 등 도덕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비도덕적 행위를 어느 정도 자제할 수 있으나 사회는 그런 자원들이 없기 때문에 훨씬 악할 수 있다. 이제는 개인보다 사회(제도, 전통, 법률 등)가 개인이나 집단에게 더 큰 고통을 가할 수 있다.

사회는 불의하고, 사람은 정의를 바란다

- 불행하게도 인간 사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불의 (unjust) 하다.
- 인간 불행의 대부분은 개인과 사회의 부정 (injustice)에 기인한다. “모든 불의는 죄” (요일 5:17).
- 정의감은 인간의 본능이다. Dr. Itard와 Victor, 冤鬼. Lex talionis (복수법)와 정당한 보상.

■ Frans de Waal, TED



윤리는 자발적으로 정의롭게 행하는 것

- 이웃과의 관계는 정의로워야. 예의, 윤리, 법은 이웃과의 “정의로운” 관계를 위한 것. 윤리의 목적은 자신의 고상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정의로운 결과.
- 윤리는 “자발적으로” 이웃에게 해가 되지 않게 행동하는 것. 십계명의 윤리적 계명은 모두 “..하지 말라”의 형식으로.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이웃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나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고 고통을 가하지 않는 것은 윤리적 의무.

- J. S. Mill. 정의 (justice)가 요구되는 것은 부정의 (injustice)가 있기 때문. 정의가 있고 그 부정 (否定)으로서 부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정의롭지 않은 상황 (injustice)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의가 요구된다는 것.

弱肉強食의 상태를 막기 위하여 국가 (Thomas Hobbes, *Leviathan*)가 필요. 국가의 기본 임무는 정의의 확립.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

-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질서가 파괴되어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약자가 그 주 피해자가 된다.
- . Hugh Bayley, “뇌물이란 가난한 사람의 돈이 부자에게 직행하는 것”

남양주의 원진 레이온(1964-1993) 인견사 공장. 이황화 탄소 중독으로 8명 사망, 637명 장애. 공해산업은 경제수준에 따라 일본, 한국, 중국, 북한으로 이동.

- 세계은행에 의하면 부패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친다. “부패는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야 할 공적 서비스를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의 입에서 빵을 빼앗는 행위다.”

- Aristoteles: 정의란 “같은 경우는 같이 취급하는 것” (To treat the like alike)이라 정의했다. M. Sandel은 영어 단어 “fit”로 설명. 그러나 어떤 것을 “같은 경우”라 하는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노예와 귀족, 남자와 여자를 “다른 경우”로 취급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적합하지 않다.

-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the greatest benefits of the least advantaged.” (Difference Principle). 최소수혜자의 최대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정의.
- 구약성경은 고아, 과부, 객 (외국인), 신약성경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인 같은 “약자”들에 특별한 관심을 보임. 이것이 기독교적 정의. 부정의의 구체적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 (마태복음 20 장의 비유). 의인 10사람.

- (시 146:7)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일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간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 (신 10:18)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 (사 1:17)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심

- (시 11:7) “여호와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오리로다.”
-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정에 호소하므로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려 시도 함.

하나님은 정의를 기뻐하심

- (시 106:3)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 (잠 21:3)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의”와 “정의”

- Δικαιοσύνη, “의” (righteousness), 정의 (justice)
- (마 23:2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사적이고 개인적인 경건 뿐만 아니라 정의를 추구하고 지키는 공적이고 사회적인 책임, 즉 타자들, 특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과 안정을 추구하고 특권과 권력의 남용을 막는 것도 감당해야.

기윤실의 윤리운동

- 기윤실이 정직과 더불어 “절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자발적으로 정의롭게 행동하는 윤리는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절제”할 수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
- 고대 그리스, 불교, 유교도 절제를 강조하지만 기독교 절제의 목적은 사랑. W. Grundmann은 헬레니즘이 강조한 절제는 자신의 도덕적 수월성을 위한 것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절제는 “이웃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함.
-

- 기윤실의 윤리 운동은 한국 교회와 사회가 정의롭게 되어서 약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게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

•

감사합니다

이념과 신앙

2022.11.3.

기윤실 아카데미. 그리스도인의 삶과 길
손봉호

- “이념” (ideology)은 지금 다양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작용하고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세상을 설명하면서도 (이론적) 동시에 세상을 바꾸기를 (실천적) 추구하는 관념들(ideas)의 체계”라 정의할 수 있다.
- *Idéologie*란 용어는 프랑스 혁명기에 철학자 [A.-L.-C. Destutt de Tracy](#)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관념학”(Science of ideas)이라 이해했다.

- 이론이란 세상을 “설명” (explain)하고 “예측”(prediction)하는 객관적인 지식체계지만 이념은 동시에 F. Bacon의 지식 관에 입각해서 편견을 버리고 이성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교육하므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사명을 가진 학문 체계란 “실천적” 함의를 가짐.
- 마르크스의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주장” (Thesen über Feuerbach) 11. “이제까지 철학자들은 세상을 여러 모양으로 설명만 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꾸는 것이다.”

- Destutt de Tracy와 그를 추종한 *idéologues*들은 개인의 자유를 절대적인 것으로 강조했고, 프랑스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회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 국가 교육체계를 고안했다. 그것은 제 1공화국 (1795-1799)의 공식적인 정책기조가 됨.
- Napoleon은 초기에 이에 동조하였으나 제 1공화국을 무너트린 후에는 그들을 부정적인 의미로 *ideologues* 라 불렀다. Marx는 그 부정적인 의미를 답습하여 자신의 이론(Wissenschaft)과 다른 의견들을 모두 Ideologie, 즉 “거짓 의식” (falsches Bewußtsein)으로 폄화 함. 그러나 가끔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

- “이념”은 광의로는 “행동을 목적으로 하는 이론” 혹은 “일정한 관념의 체계에 따라 정치문제를 접근 하는 시도”로 이해 되지만
- 좀 엄격하게는 (1) 인간 경험과 세상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이론, (2) 정치적, 사회적 조직에 대한 대략적인 프로그램 제시 (3) 그 프로그램 실현하기 위한 투쟁 (4) 그 프로그램에 헌신할 수 있는 추종자 모집, 설득 (5)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지만 특히 지식인들에게 특별한 지도적 위치를 부여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사회와 개인의 변화를 위한 이론, 독단적인 확신과 헌신의 요소들 때문에 이념은 "종교" 혹은 "세계관"과 비슷. 실제로 Marx에게 종교는 대표적 이념. 거짓일 뿐 아니라 민중을 환각에 빠지게 "대중의 아편"(das Opium des Volkes)이라 함.
-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념적"이란 형용사가 "이념" (ideology)이란 명사보다 더 광범위하게 사용됨. 잘 조직된 "관념의 이론"이라고 보다는 확신, 독단, 헌신 등 이념이 가진 몇 가지 특성을 보이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집단적 경향을 "이념적"이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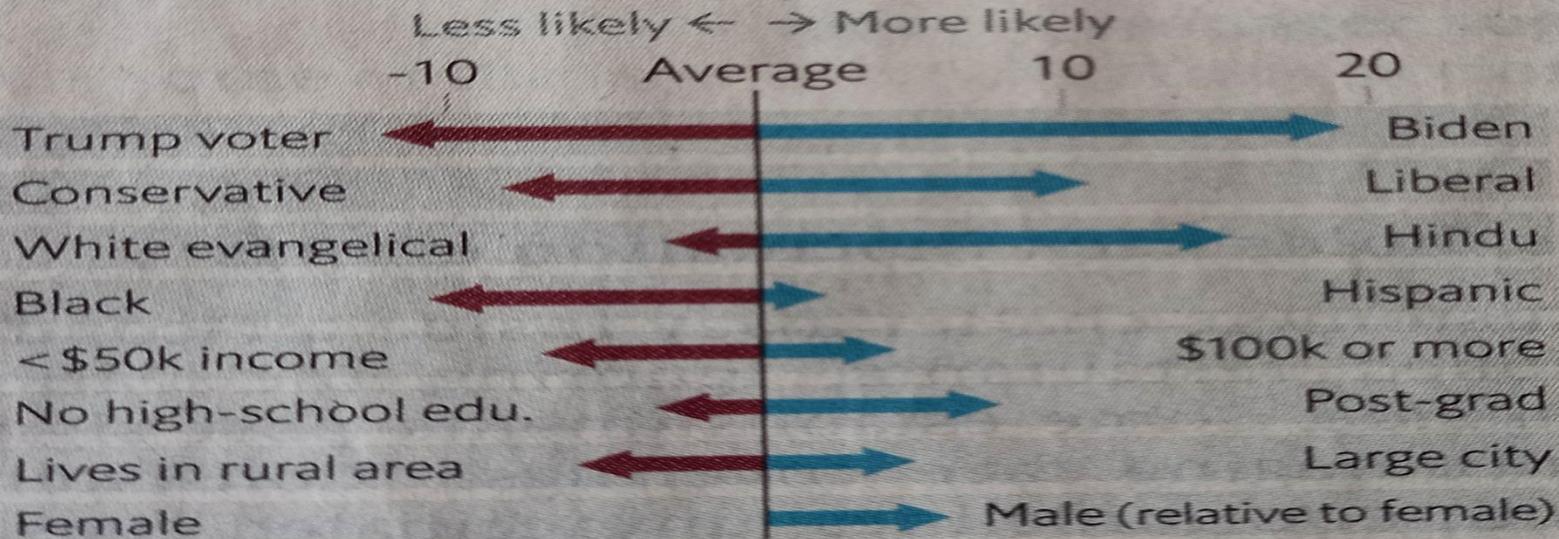
- 헝가리 출신 독일 사회학자 Karl Mannheim은 Marx와 비슷하게 이념은 사회적 현상, 특히 계급 이익을 반영한다고 주장. 그런 주장은 S. Freud의 잠재의식 이론으로 더욱 강화됨. 그는 자신의 지식사회학 (Sociology of Knowledge)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급 없는 지식인 계급"의 가능성을 주장함.
- 일반적으로 고소득자들은 보수적, 저 소득자들은 진보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은 지식 사회학의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

- 프랑스 경제학자 Thomas Piketty와 공동연구자들은 최근 서구의 이념 지형이 바뀌지고 있다고 주장. 과거에는 고소득자와 고 학력 소유자가 보수적, 저 소득자와 저 학력 소유자가 진보적이었는데 최근에는 고 학력 소유자들이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로 진보 쪽으로 기울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저소득자와 저 학력 소유자들도 모두 고소득자와 함께 보수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 이런 현상이 미국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저 소득, 저 학력 소유자들이 대부분 Trump를 지지한다 함. 이런 현상은 복음주의 기독교계에도 나타난다 함.

Jabs v jab-nots

US, covid-19, difference in likelihood of being/intending to get vaccinated*, % points, 2021

By demography



*Relative to the profile of the average American

Source: YouGov/The Economist

those in rural
proportionat

Prominer
hosts, such a
made a spect
vid-19 vaccin
YouGov's mo
July 24th-27
adults who s
has held stea
pandemic w
to such mes
After all, the
about jobs fo
ing on parti
could be des
poor and ru
outreach an
ination for t

- 한국에서도 진보, 보수의 이념적 갈등이 심각하지만 서구 사회와는 다른 양상을 보임. 소득 격차나 지식인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남북분단 (특히 6.25전쟁), 일재 강점, 장기간의 독재 등의 극단적인 역사적 경험과 차세중심적 세계관, 급격한 경제성장, 지역 감정 등이 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에 더 큰 영향을 행사.

- 어떤 이념에 입각한 사회변혁 청사진이 구체적인 현실이나 사회구성원 모두의 이상과 항상 일치할 수는 없음. 불가피하게 다수 혹은 일부의 적응이 강제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게 되고, 경직된 이념은 독재로 이어질 수 있음.
- Marx-Leninism을 따르는 공산주의는 구체적인 현실이 이념의 틀에 맞지 않으니까 강제로 맞추려 하므로 “프로크르스트 침대”(Procrustean bed)의 오류를 범하게 되어 모두 독재 사회로 귀결.

- 이념에 비판적인 입장은 실사구시(實事求是)를 내 세우는 실용주의라 할 수 있다. 이런 사회 운영을 Karl Popper는 Piecemeal Engineering라 불렀다. 이념에 입각한 전체적 청사진이 아니라 구체적인 약점이 발견되면 조심스럽게 하나씩 고쳐나가는 방법을 뜻한다. 한 때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성향 지식인들이 이런 점진적 개혁을 기득권 수호의 보수 이념으로 매도하였다. 독재 시대에 가능한 비판이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지극히 복잡하게 조직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특정 이념에 의한 사회 경영은 위험하고 무책임할 수 있다.

- 이념이 인간과 사회의 변혁을 노리고, 추종자들이 확신, 헌신, 심지어 독단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종교적 신앙과 유사. Marx는 종교, 특히 기독교를 이념, 즉 "거짓 의식"의 대표로 취급. 19세기 서구 기독교가 자연과학의 도전을 받아 힘을 잃기 시작하고 그 자리를 이념들이 차지하게 되어 19세기가 "이념의 시대" (the age of ideology)로 알려지게 된 것은 이념들이 종교적 신앙의 자리에 들어 선 것을 보여준다.

- Marxism이 종교를 이념으로 보는 것은 동시에 이념이 종교적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뜻하고, 공산주의 신봉자들 뿐 아니라 진보, 보수 이념 추종자들 가운데도 종교적 열정으로 테러행위를 감행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2021년 1월에 미국 의사당을 습격한 Trump 지지자들은 일종의 이념 광신도들이라 할 수 있다.

-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오류 가운데 하나는 이념을 기독교 신앙으로 착각하거나 신앙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복음주의자들 (Evangelicals) 의 80%가 Trump를 지지. 어떤 면에서도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는 그를 기독교인들이 지지한 것은 신앙이 아니라 이념 때문이며, 구체적으로는 그와 대결한 Clinton 후보가 낙태를 지지했기 때문. (한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은 낙태보다는 동성애를 더 반대하고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보다는 낙태를 더 반대)

- 물론 기독교인도 이상 사회에 대한 비전이 있고 그런 사회적인 물성을 추구하며 노력하며, 의롭고 참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념 추종자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음.
-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이상 사회를 "정치적"으로나 사람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도 이룩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음. 이성에 근거한 어떤 이론도 절대적일 수 없으며, 그런 이론에 근거한 확신과 희생은 상상송배가 될 수 있음. 기독교는 이성이 아니라 계시 에 근거하며 이상적인 사회는 오직 하나님만 이룩. "사랑" 외에 는 모든 것을 잠정적이고 상대적인 것으로 취급.

- 그리스도인도 진보적 혹은 보수적이 될 수는 있고 동의하는 정당을 지지할 수 있으나 결코 그 때문에 정의와 사랑에 어긋나는 판단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금물. 이념을 상대적이고 잠정적인 것 이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도 일종의 우상숭배라 할 수 있음.

•

감사합니다

선지자적 비관주의

2022.11.3.

기윤실 아카데미. 그리스도인의 삶과 길
손봉호

- 인간은 "역사적 동물"이다. 인간만이 과거를 "기억" 할 수 있고 그 기억을 외부로 표현해서 축척하므로 문화를 만들며, 그 문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즉 인간만 역사를 가질 수 있고 역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자연과 다르다.
- Augustinus (354-430)는 그의 "참회록"에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시간을 쟀다 했다. 즉 "기억" (memoria)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의식하고, "기대" (expectatio)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인식한다는 것이다. "기억"은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이다. 짐승은 기억할 수 없거나 기억해도 오래 유지하고 간직하지 못한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대인들은 역사를 자연처럼 이해하였다. 역사도 자연처럼 시작도, 끝도 없이 무한하게 순환한다고 믿은 것이다 (循環的 歷史觀- Circular View of History). 해마다 춘분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역사도 동일한 것이 반복된다고 본 것이다. Nietzsche도 역사의 영원한 회귀 (ewige Wiederkehr)를 주장. 불교, 힌두교, 심지어 유교조차도.
- 순환적 역사관은 동시에 과거지향적 역사관이다. 역사의 황금기 (golden age)는 과거에 있었다고 봄. 중국은 삼황오제 (三皇五帝), 요순 시대 (堯舜之聖代)가 이상적인 시대로 믿었다.

- 이런 과거지향적 역사관은 동시에 퇴행적 역사관 (Regressive View of History)이다. 즉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과 사회는 나빠진다는 견해다. 조선조 이이(栗谷)는周公(周公)이전은 치세(治世),周公 이후는 난세(亂世)라 했다. 공자도周公을 꿈에서 보지 못해서 안타깝다 했고, 자신의 창조성을 부인했다.
- 서양에서도 16세기 영국 철학자 F. Bacon이 “우리는 고대 성현(the Ancients)들 보다 더 많이 안다”고 주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했다. 이런 과거지향적 역사관에서는 “진보”를 기대하지 않고 따라서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 역사상 퇴행적 역사관을 바꾼 것은 성경이고,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한 것은 Augustinus. 성경은 역사의 시작과 종말을 가르치므로 “진보” (progressus)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 기독교는 역사상 처음으로 시작과 끝을 인정하는 “선적 역사관” (linear View of History)을 제시했고 동시에 “미래지향적” 혹은 “진보적 역사관” (Progressive View)를 도입했다. 그 외에 순환하면서 발전한다는 나선형 역사관 (Spiral View of History)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 그러나 이런 진보적 역사관이 실제로 일반화된 것은 종교개혁이 이뤄진 16세기 후였다. 역시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고 올바르게 이해되었을 때 성경적 역사관이 제대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역사관이 미래지향적이 된 것은 사회와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 한국인의 역사관이 언제 미래 지향적으로 바뀌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실학자들 (16-17세기)에 의하여 시작되고 새마을운동으로 일반화되지 않았나 한다. 지금은 순환사관이나 퇴행적 역사관을 가진 지역은 없는 것 같다.

- 그러나 역사는 계속 진보한다는 주장(Whig view of history)은 일반적이지 않다. Hegel과 Marx는 역사 발전 법칙 (변증법)을 제시하고 그 법칙에 의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20세기 사회과학자들 가운데도 사회변화의 법칙을 발견하여 미래를 예측하려는 역사주의(historicism)자들이 있었으나 Karl Popper의 효과적인 비판 (*The Poverty of Historicism*)을 받았고 (부분적으로) 경제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패했다.

- 진보의 가능성을 제시한 Augustinus도 낙관적인 역사철학이나 역사 발전의 법칙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Divine history is mystery"가 그의 역사관이라고 알려져 있다.
- 성경도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세상이 더 좋아진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딘후 3:1이하, 벤후 3:3 등은 말세에 사람들이 더 악해 질것이라 한다.
- 예수님은 하늘나라에도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 하셨다. (마 13:24-30). 역사적 현실은 이중적이고 애매하며 복합적이다.

- 개발 혹은 발전 (development)이란 가능성 (potentialities)이 현실화(realization, envelop)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발전한다는 것은 반드시 낙관적인 역사관을 뜻하지 않는다.
- 그러나 어떤 분야에는 진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절대빈곤 인구(하루 1불 40전 이하로 생존)는 지난 20년 간 1/3에서 1/10로 줄어졌고, 여성, 어린이, 장애인,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 고문 등의 감소로 기본 인권도 다소 신장되었으며 민주주의도 어느 정도 확산되었다. 과학과 과학기술은 괄목할 정도로 발전했다.

- 그러나 불의와 비극은 사라지지 않고, 환경오염은 이제까지 이룩한 모든 발전을 무위로 만들 수 있고 전염병 창궐도 걱정된다. 인류의 생물학적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데도 그것을 예방할 기술은 개발되지 않았으며, 그 재앙에 대비하는데 필수적인 책임 의식은 너무 약하다. 그 악화 속도가 느려 대부분은 그 심각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대책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에 대해서 책임질 정도의 이유를 실감하지 못한다.
- 이런 상황은 환경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군비, 경제, 심지어 도덕문제까지도 이런 난관을 봉착할 수 있다.

- 인류의 생존과 번영은 자연도, 역사도 보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제는 인류의 존속과 행.불행은 오직 사람이 책임져야 하고 우리 모두는 그런 책임의식을 갖는 바람직하다.
- 그런데 문제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전체의 생존과 이익을 책임을 지려는 소수의 선구자들도 그들의 노력이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선지자적 비관주의"가 아닌가 한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부름을 받은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은 절망적이었다.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불의한 행실을 고치라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을 미리 알았고, 바로 알았다. 실제로 그들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고 포로로 잡혀 갔으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은 영원히 없어졌다. 선지자들은 철저히 비관적이었다.
-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를 외쳤다. 외쳐야 했기 때문이었다.

- 기독교 시민운동은 바로 이런 “선지자적 비관주의”에 입각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에 시도한다. 선지자들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외쳤다. 교회와 사회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을 보고도 수수방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대와 이웃의 이익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이웃 사랑에 어긋난다. 모든 악은 不義며, 약한 이웃에게 억울한 고통을 가한다.

- 2.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크게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실패하는 것이 정상이다. 기윤실은 35년 간 노력했지만 한국 교회와 사회는 별로 정직하게 되지 않았다. 그래도 낙심할 이유는 없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도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 물론 실패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철저히 반성하고 개선하는 것은 당연하다. 선지자들은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탓할 수 있었지만 아무나 그렇게 할 자격은 없다.

- 물론 회개, 개혁, 개선을 위한 시도들이 성공할 수도 있다. 공선협은 비관적이었지만 비교적 성공했고, 종교개혁은 불가능한 것 같았지만 성공했다. 기윤실은 한국 교계와 사회를 정직하게 만드는 데는 실패했지만 복음주의 기독교계에 시민운동을 심었고 더 심각해지는 부패를 막는데 어느 정도 공헌했다.
- 3. 그러나 성공해도 교만할 이유가 없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 뿐이기 때문이다. (눅 17:10)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 하나님 나라와 공익을 위한 기독교 시민운동은 교회나 사회 개혁에 성공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철저히 순수하고 투명하며 공정하고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부정하고 불순 과정을 통하여 성공하기보다는 순수하고 공정한 과정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더 명예롭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

감사합니다.